

이승준 02) 2009-7088  
leesj@leading.co.kr

뉴욕증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공포가 계속되며 이틀째 급락. 미 대선이 끝난 후 불확실성이 다소 제거되었으나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창출 발표를 앞두고 주간 고용지표의 악화 영향으로 인하여 하락 마감.

6일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443.48p(4.85%) 하락해 8,695.79로 마감. 30종목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GM은 13.7% 밀리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.

S&P500 지수는 47.89p(5.03%) 폭락하며 1987년 10월 이래 이를 연속 최대 하락폭을 기록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2.94p(4.34%) 내린 1,608.70으로 마감.

10월 25일까지 1주 이상 실업수당을 받은 실업자는 12만2000명 늘어나 25년래 최대치인 384명으로 집계. 이에 따라 익일 발표를 앞둔 노동부 10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에 대한 우려감 증폭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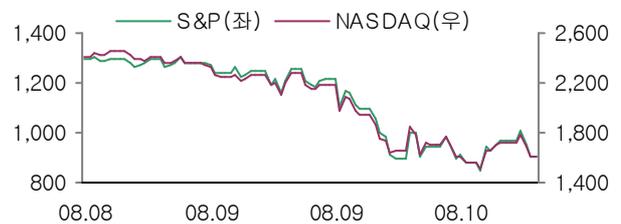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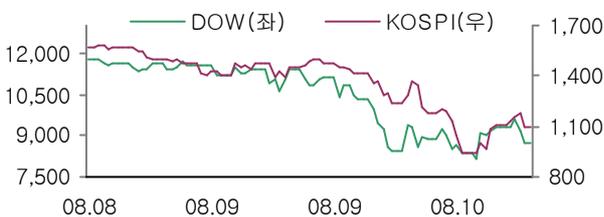
신규실업수당 청구권은 전주대비 4000명 감소한 48만1000을 기록하였지만 전망치를 하회.

미국의 3분기 노동생산성은 전 분기의 3.6%에서 크게 떨어진 1.1%를 나타내며 노동비용 증가율인 3.6%를 하회. 기업들의 감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.

국제유가는 유럽중앙은행(ECB)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후퇴로 인한 수요감소 우려가 깊어지며 하락세를 유지. 서부텍사스원유(WTI)는 전일대비 4.53달러(7%) 떨어지며 배럴당 60.77달러를 기록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증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695.79	-4.85	-5.28	0.05	-7.95	-25.40	-34.62
S&P(좌)	904.88	-5.03	-5.16	-0.36	-9.17	-29.81	-38.68
NASDAQ(우)	1,608.70	-4.34	-5.29	0.30	-8.33	-32.36	-41.48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\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  
\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 
\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